

---

## 불과 민속

- 불의 성격을 지닌  
기물(器物)을  
통한 정화(淨化)

글  
정연화  
문학박사  
국립민속박물관

---



# 불의 성격을 지닌

우리 민속에서는 불이 아닌 불의 성격을 지닌 기물들을 이용하여 부정을 몰아내고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솔과 화로, 등불이다.

# 기물(器物)을 통한 정화(淨化)

우리 혼례 풍속에서 신부가 신랑집 대문을 지날 때 솔을 밟는 것은 '무쇠처럼 튼튼해서 탈이 나지 말라'는 바람 외에도 앞으로 일생 밥을 지으며 함께 살 사람과의 상견례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와 같은 의미도 지녔지만, 불을 마주하는 솔이기에 솔을 밟는 것은 불과 접촉을 하는 셈이다. 즉, 불을 통해 신부에게 불을 수 있는 부정과 잡귀를 물리치려 한 것이다.

중국의 소수민족도 화로를 넘어가는 풍습이 있는데, 만주족의 신부가 탄 가마는 화로를 지나 신방(洞房)으로 들어갔고, 따위얼족(達斡爾族)은 산모 방에 들어가기 전에 화로를 넘어갔다. 화로는 불을 담는 도구이기에 불로써 정화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절기나 혼례 때에도 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을 넘었다. 이 같은 행위는 깨끗하고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에 붙은 잡귀와 부정을 불로 소멸한다는 의미에서 행한다. 우리나라 경기도 지역에서는 정월 보름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아이들이 자기 나이 수만큼 그 불을 넘는데, 그러면 몸 안에 붙은 잡귀가 도망가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불을 민간에서는 '땃불', '액막이불'이라고 한다. 중국 신강성의 소수민족들도 새해에 집 앞에 짚불을 지른 후 남자아이, 여자아이, 성인 남자, 여자 순(順)으로 불을 건너고 집안의 가족들도 불더미를 지나게 한다. 이렇게 하면 한 해 동안 재난이 사라지고 가족이 흥성해진다고 한다.



우리 민속에서는  
불이 아닌  
불의 성격을 지닌  
기물들을 이용하여  
부정을 몰아내고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솔과 화로, 등불이다.

혼인한 새색시가 시집으로 처음 오는 날 문앞에 화톳불을 피워놓고 이를 뛰어넘게 하여 혹시 문어울지도 모르는 잡귀를 쫓았다. 유사한 풍속은 중국에서도 보인다. 광둥성 신부들은 시댁 대문에 도착하면 짚불을 넘고 들어가는데, 짚불을 가리키는 '연화(烟火)'의 연(烟)자가 혼인의 인(姻)자와 같은 발음에서 따온 것이다. 귀주성의 투지아족(土家族)은 신부가 시집 대문을 넘어갈 때 기름 그릇 안에 켜놓은 일곱 개의 등불을 넘게 한다. 일곱 개의 불은 복두칠성을 상징하며, 신부가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씨족(畚族)들은 신부가 시댁 대문에 도착하면 신랑측 삼촌이 등불을 들고 먼저 들어가고, 백송잎과 옹황을 태워 신부의 가마 주위를 세 번 돈다. 이는 연기를 통해 잡귀를 몰아내는 것으로, 가마에서 내려온 신부는 시댁 대문 앞의 불을 지른 장작더미를 넘고 들어간다.

신강성 하사커족(哈薩克族)은 혼례 때 신부를 장작불 앞에 놓고, 한 부녀자가 국자의 기름을 장작더미에 뿌려 불꽃이 잘 타오르게 하고, 다른 부녀자들은 장작불에 손을 쪼인 후 자신의 얼굴을 문지르고, 다시 신부의 얼굴을 문질러준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부의 행복을 기원한다. 조상의 혼령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축원을 해준다.

한편, 운남성 서쌍판납(西雙版納)의 뿌랑족(布朗族)은 결혼 후 이튿날 새벽에 처가 대문에 촛불을 쬐는다. 불처럼 처가가 번창하고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야오족(傜族)들은 만월(滿月)이 되기 전에 다른 집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만약 급한 일이 있으면 대문 앞 불을 넘어서 들어와야만 한다.

불은 정화의 물질이고 어둠을 밝혀주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주는 경외의 존재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솟아오르는 생명력을, 그 파괴력은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정화의 표상이다.

불씨가 남긴 재를 뿌리거나 바르는 행위 자체도 곧 불을 의미한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신랑이 혼례를 치르기 위해 처가에 도착하면 신부 친지들은 신랑을 향하여 재를 뿌려 신랑에게 붙어온 귀신을 쫓아버린다. 반대로 신부의 가마가 시댁 대문을 지날 때도 재를 뿌린다. 또한 콩·좁쌀 등을 뿌리기도 하는데 모두 축귀(逐鬼)하는 의미이다. 함을 진 함진아비 얼굴에 재를 바르는 것도 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국 서장의 장족(藏族)들은 아이가 첫 번째로 외가에 가는 경우 코끝에 재를 바르고 몸에는 예전의 달력을 건다. 그러면 '수(祟)로 부터의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이처럼 재를 뿌리는 행위는 중국에서도 보인다. 가마가 오는 길에 재를 뿌리는데, 그러면 귀신의 눈을 흐리게 하여 신부를 해치는 등의 나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북성에서는 초상이 나면 재로 문앞에 사선을 그려 죽은 자의 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상여가 나갈 때에도 재로 사선을 그린다. 강서성의 농촌에서는 향로에 담긴 재를 이용하는데, 향로가 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도 그만큼의 힘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운남성 와족(瓦族)들은 대문 쪽으로 재를 뿌린 후 문을 닫는다. 모두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睡虎地秦墓竹簡·日書』(수호지진묘죽간·일서)에 보면 「장자」의 내용을 인용하여 '문에다 재를 뿌려 귀신을 쫓았다(挿桃枝於戶, 連灰其下, 童子入不畏, 而鬼畏之)'고 적고 있다. 이처럼 재는 불의 잔재로써 음인 귀신을 몰아내는 정화의 힘을 가진 것이다.

혼례 때 들고가는 청사초롱과 절기 때 걸어두는 등도 불이자 빛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온 집안의 불을 켜놓는다. 빛으로 잡귀를 물리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랑이 청사초롱에 불을 밝히고 처가로 가는 것도 축귀(逐鬼)의 뜻이며, 불빛에는 생명을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을 가져다준다. 그래서 태양 숭배와 함께 많은 태양 신화(神話)가 생긴 것이다.

중국에서는 정월 보름이나 추석, 귀신절이 되면 등불을 대문에 걸어둔다. 정월 보름에 집을

찾아온 조상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길을 밝혀주기 위해 등을 걸고, 또한 등불을 밝히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한다. 가난한 가정에서도 등불을 밝히는 일만은 지킨다.

사천성의 한족들은 정월 15일에 걸었던 등을 훑쳐다 임산부 집에 걸면 아들을 낳는다고 여긴다. 추석에는 대문 양쪽에 등죽(燈竹)이나 촛불을 걸어 악귀를 쫓고, 안휘성 일대에서는 일주일 동안 대문에 등을 걸면 주인이 장수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등을 '만수등(萬壽燈)'이라고 한다. 대문에 건 두 개의 등불을 용의 눈에 빚대어 말하기도 한다. 연등이라 함은 등을 달아 불을 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말한다. 불교에서 등불은 지혜를 의미하여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 중의 하나로 여긴다.

음력 7월 15일을 '귀신절'이라고 하는데, 양자강 이남 지역에서는 귀신절에 지장보살이 눈 뜰 때 귀문(鬼門)이 열리고, 귀신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제사음식을 향유한다고 한다. 이때 집안에 등불을 걸어두면 귀신들이 그 등불을 따라서 집으로 온다고 한다. 이처럼 중국에서 등불은 강한 빛을 상징하여 잡귀를 몰아내고, 등불의 강한 생명력은 장수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산력이 생긴다고 여긴 것이다.

우리나라 제사 때는 집안의 모든 문을 열어두고 불까지 밝혀두는데, 그 불빛을 보고 혼령이 문으로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음력 7월 15일 '귀신날'에 대문에 불을 켜놓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새집을 들어갈 때 덕망있는 어른이 먼저 들어가고, 제일 먼저 화로를 가져간다. 화로는 불씨를 보관하는 것으로 화로의 불이 꺼지는 것은 가문의 멸망을 의미한다. 화로의 불처럼 집안이 융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솥 안에 요강을 넣어가는데 가족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솥은 밥 짓는 기구이고, 요강은 배설을 담는 그릇이듯이, 잘 먹고 배설을 잘 하는 것은 건강을 의미한다. 이 밖에 대문 앞에 소금을 뿌려 집의 부정을



가시기도 한다.

절강성(浙江省) 승주(嵊州)지역에서는 새집 대문 앞에 돼지고기·닭고기·물고기 등을 차려놓고 천지보살에게 제를 먼저 올린 다음, 식구들이 물건을 하나씩 들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남녀 주인은 성냥을, 아들들은 화로, 불집게, 곡식을 담은 광주리 등을 가지고 들어간다. 불과 관련된 도구들은 '불처럼 일어나 부자가 되라'는 의미이고, 광주리는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근래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청사초롱을 걸어두기도 한다. 그 불빛을 보고 손님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중국에서는 정월 15일에 걸었던 등은 식당의 규모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기도 한다. 등을 1개만 건 식당은 국수 등 간단한 음식을 파는 곳이고, 4개의 등을 건 집은 모든 요리를 만드는 집이라는 뜻이다. 등불이 가진 의미가 상업적으로 변색된 것이다. ☺